

국소의치 제작 후 문제점 극복



이석형 삼성서울병원 보철과

- 경희의료원 보철과 수료 및 강사
- 독일 Tuebingen 대학 보철학 수료 및 박사
- 현) 성균관대의대 교수 및 삼성서울병원 보철과 과장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서 가철성 보철물은 오랜 시간 동안 치과 의사에게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를 하게 한 치료 과목이다. 간단하면서도 복잡하고 치료 과정마다 딱 떨어지는 결과가 술자의 손기술과 경험에 의지하여 쉽지만 어려운 치료로 다루어진다. 치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Removable Partial Denture는 완벽하지 못한 치료이다. 구강 내 연조직은 음식을 직접 저작하는 조직이 분명 아닌데, 우리는 그 연조직에서 음식을 저작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항상 시작한다. 그래서 술자는 환자 입장에서 항상 생각 해야 한다. 특히, 가철성 보철 환자 치료 시에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는 가철성 부분 무치악 환자 치료 후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다. 치료 후 가장 먼저 보철물이 잘 만들어 졌는지 하는 것이 가장 먼저 check 되어야 한다. RPD의 실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실패 및 치료를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치료 되고 잘못된 제작된 보철물이다. 이러한 경우, 술자는 무엇을 잘못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치료 계획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치료 과정에서 error가 발생 했는지, 가공 과정에서 잘못 되었는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 과정 과정에서 확인하고 다음 치료 step으로 넘어간다면 사실 쉽게 잘못된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잘못을 쉽게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가끔 이러한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무시하고 치료 과정을 넘어가다 보

면 misfit 보철물을 구강 내에 남겨 놓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술자의 치료에 방향성을 제시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환자의 불평이다. 그러나 술자들이 쉽게 환자들의 불평을 무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환자의 개인적인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 환자와 오래 만나게 되는 보철과 치료의 특성상 환자의 개인적인 성격을 대충 파악하게 되면 환자의 절실한 SOS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무시 해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통 치과에서 문제 환자로 분류 되는 말이 많고 불만이 많으며 사고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판단 되는 환자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민하며 의심이 많고 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설명이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 과정 내내 조금의 불편을 못 참고 술자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가철성 보철물의 특성 상 답답함과 보철물의 크기에 대한 이물감을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평과 pain에 의한 불편을 환자가 술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 되면 술자는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환자의 일반적인 불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시 할 수 있다. 혹시 선생님의 환자가 치료에 불만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 치료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종결 후에는 환자의 불평과 불편을 술자는 잘 파악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해결 방법과 치료 후 처치에 대한 방향을 제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misfit 보철물을 찾는 법과 환자의 불평을 듣고 해결 하는 방법을 같이 생각 해 보도록 하자.